6년반 만 베이징 공식 방문해 CEO들 만나“다양한 레벨에서 중국과 소통 강화 할 것”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가 생산한 전기자동차가 4월25일 중국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브라질 수출을 앞두고 화물선에 실리려 대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외교 수장으로 6년반 만에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중 관계의 변화가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레벨에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13~14일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의 회담에 앞서, 오전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SK), 씨제이(CJ) 등 재중 한국 기업 대표 10명과 대화 자리를 가졌다.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외 여건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중 간의 높은 상호 의존성은 그간 양국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번영하는 원동력이긴 했지만 그만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양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 사이에서 이제는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방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조만간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처음이자,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베이징 공식 방문 이후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6년 6개월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그의 방중에 이어, 오는 26~27일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한·중·일 관계가 어느 정도나 풀릴 지 주목된다.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아래 왼쪽에서 넷째)이 재중 기업인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왕 부장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며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에 관한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과의 경제 문제 등 양국간 문제를 비롯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북·러 군사협력 등 지역·국제 문제 등 한·중 사이에 놓인 문제 전반에 대해 왕 부장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몇 년 새 지정학적 환경이 많이 바뀌어 진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중국이 어떻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이후 여파가 지속되는 ‘한한령’에 대해서도 “큰 맥락 속에서 관련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